

‘47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 “야구의 신이 준 선물이다”

극적인 내야안타로 구단 신기록... “좋은 기회 만든 구즈먼 안아주겠다”



“야구의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구단 신기록 작성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신수는 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원정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8회까지 4차례 타석에 들어서 한 번도 출루하지 못했다. 안타를 치지 못했고 볼넷도 얻지 못했다. 지난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매 경기 출루해 온 추신수가 이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는 추신수의 ‘천적’ 마이클 풀머였

다. 추신수는 이날 경기 전까지 풀머를 상대로 7차례 타석에 들어섰는데 한 차례도 출루하지 못하고 7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풀머가 마운드를 지킨 7회까지 추신수는 한 번도 1루를 밟지 못했다. 텍사스의 9회초 공격은 7번 타자부터 시작해 삼자범퇴로 공격이 끝날 경우 추신수의 타석은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9회초 1사 후 8번 타자 로널드 구즈먼이 중전 안타를 치면서 추신수에게 기회가 왔다. 풀머가 아닌 상대 우완 불펜 투수 빅터 알칸타라를 상대한 추신수는 2구째 체인지업에 배트를 내밀었고 3루수 방면 내야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가 47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가 텍사스 구단의 단일 시즌 최장 연속경기 출루 신기록을 세우는 순간이었다. 추신수는 1998년 홀리오 프랑코가 세운 기록을 넘어섰다. 경기 후 추신수는 “내가 이런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상상한 적도 없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니 4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웠다. 이어 “9회 마지막 타석에서 타구를 날리고 1루로 뛴 때 사람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텍사스 동료들은 내 다리가 완전히 트러블을 앓는 것을 알아서 더 소리를 친 것 같다”며 “동료들이 기뻐해주어서 더욱 뿌듯했다. 동료들 덕분에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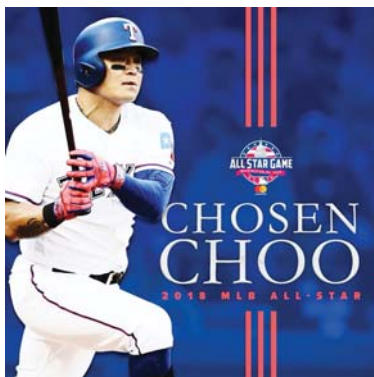
울 수 있었던 기록”이라고 전했다. 추신수는 “9회에 한 차례 더 타석에 들어설 것이라고 믿었다. 7회가 마지막 타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료들을 믿었다”며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기록은 선물이다. 야구의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추신수가 가장 고마워하는 선수는 구즈먼이었다. 추신수는 “마지막 타석까지 안타를 치지 못한 경기는 많았고 많이 긴장하지 않았다”면서도 “구즈먼이 기회를 줬다.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면 구즈먼을 꼭 안아주겠다”고 말한 뒤 웃었다. 제프 배너스터 텍사스 감독은 “추신수가 마지막 타석에서 최장 연속경기 출루 구단 신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매일 기대하게 된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 밸러스 모닝 뉴스 등 현지 언론들도 추신수의 구단 신기록 달성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밸러스 모닝 뉴스는 추신수의 기록 달성 소식을 전하면서 추신수의 별명 ‘추추 트레인’을 떠올리며 “기차가 지나갈 때에는 트랙에서 물러나세요”라는 재치있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추신수,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

박찬호·김병현에 이어 한국인 세 번째...오는 18일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한국인으로는 박찬호, 김병현에 이어 세 번째 올스타전 출전이며, 한국인 야수로는 처음이다. 동양인 야수로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미쓰이 히데키 이후 세 번째다. MLB 사무국은 9일(한국시간) 2018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추신수는 아메리칸리그(AL) 외야수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 추신수와 함께 아메리칸리그 외야수 후보로 뽑힌 선수는 총 4명이다. 클리블

랜드 인디언스의 마이클 브랜틀리, 시애틀 매리너스의 미치 해너거,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조지 스프링거가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추신수는 지난 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원정경기에서 4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이는 텍사스 구단의 단일 시즌 최장 연속경기 출루 신기록이며 1998년 홀리오 프랑코가 세운 기록을 넘어섰다.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의 출루 신기록과 함께 커리어 통산 첫 올



스타 출전 소식을 전했다. 한편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 팬 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투표는 MLB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 MLB.com을 통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올해로 88회째를 맞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대한게이트볼협회(맹수일 회장)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담양군 창평게이트볼구장서 ‘2018년도 전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맹수일 대한게이트볼협회장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게이트볼협회 전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대한게이트볼협회 8개 위원회 비전과 전략 등 발전방향 협의
담양군 창평구장서 게이트볼협회 전문위원회 80여 명 업무공유

사단법인 대한게이트볼협회(맹수일 회장)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담양군 창평게이트볼구장서 2018년도 전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17개 광역시 도 전문위원회 80여 명이 모여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하반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공유 및 협약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맹수일 회장은 개회식에서 “각 지역의 게이트볼의 선두 주자들로써 먼저 예절을 중시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귀남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게이트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문위원들로서의 소임을 다 해 달라”며 “인간의 소중한 만남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게이트볼의 발전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8개 위원회(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 홍보위원회, 청소년위원회)별 친선게임에서는 역시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최연소 위원회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는 준우승에 그쳤다.

경기를 마치고 위원회별 본인토의에서는 홍보위원회(장육재 위원장)는 위원장 주재로 12명이 밤 늦게까지 게이트볼의 인식전환을 위한 발전과 홍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는 노인스포츠로만 인식이 고정된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홍보위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홍보위원회가 각 지역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외인지도 및 홍보 전략에 앞장 서자고 다짐했다. 한편 워크숍이 끝나고 참석자 80명 모두가 화합을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작별의 악수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도전하는 하반기 워크숍을 기약했다.

담당=박종영 기자

김세영, ‘손베리 크리크’ 우승...31언더파 LPGA 신기록

4R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잡아내 7언더파 65타



김세영(25)이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의 손베리 크리크 옛 오나이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LPGA 클래식’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72홀 31언더파 257타. 김세영(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역사상 최고의 스코어 카드를 적어냈다. 김세영은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의 손베리 크리크 옛 오나이다 골프장(파 72)에서 열린 ‘손베리 크리크 LPGA 클래식’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잡아내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1라운드 9언더파, 2라운드 7언더파, 3라운드 8언더파, 4라운드 7언

더파의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최종합계 31언더파 257타를 친 김세영은 여유있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2017년 5월 로레아 오초아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김세영은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통산 7번째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002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에서 아니카 소렌스탐이 적어낸 72홀 최저타 기록(27언더파 261타)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김세영은 전날 54홀 최저타 타이거(24언더파)를 작성하기도 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서도 72홀 31언더파는 한 차례밖에 없었다.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는 2001년 메르세데스 챔피언십에서 31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세영은 4라운드에서도 버디 행진을 펼쳤다. 날카로운 아이언3과 안정된 퍼트가 돋보였다. 4라운드에서 그린잡률은 94%에 달했다. 1번 홀을 버디로 시작한 김세영은 5, 6, 9번홀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내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김세영은 후반에도 3타를 줄여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는 4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며 김세영을 추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2언더파 268타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양희영은 이날 1개 버디 5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고진영(23)과 최은정(28)은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외국인 감독인 팀, 월드컵 우승 못한다...그럼 벨기에에는?

1930년 이후 자국 감독만 우승

1930년 시작된 월드컵 이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록을 벨기에가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감독이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징크스다. 2014 브라질 월드컵까지 20차례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예외 없이 자국 감독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는 4강에 오른 국가들 중 외국인 감독인 팀은 벨기에가 유일하다. 벨기에에는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45)이 이끌고 있다. 프랑스는

디디에 데샹(50), 잉글랜드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48), 크로아티아는 즐리트코 달치치(52) 등 자국 감독들이 지휘봉을 잡았다. 역대 월드컵에서 외국인 감독이 맡은 팀이 결승에 진출한 것을 2차례에 불과하다. 1958년 스웨덴월드컵 조지 레이너(잉글랜드) 스웨덴 감독과 1978 아르헨티나월드컵 에른스트 하펠(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감독이다. 따라서 마르티네스 감독이 4강에서 프랑스를 꺾으면 결승에 오른 3번째 외국인 감독이 된다. 마르티네스 감독은 2016년 8월 마르 빌모츠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 받았다. 최근 23경기 연속



무패 행진(18승5무)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프랑스 축구의 전설인 티에리 앙리를 수석코치로 기용, 주목받았다. 외국인 출신 감독의 우승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와 같은 축구강국들은 축구 인프라가 풍부하고 그만큼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감독을 찾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KIA 신종길·손영민·최병연 웨이버공시 신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외야수 신종길(35), 투수 손영민(31), 내야수 최병연(32)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KIA는 최근 3명의 선수들과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를 거쳐 2009년 KIA에 입단한 신종길은 2013, 2014년 2년 연속 100안타를 돌파했고, 2016년에도 타율 0.310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군 무대에 한 차례도 서지 못했다.

손영민은 KIA에서만 328경기에 출전해 27승 19패 9세이브 52홀드를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KIA의 주축 불펜 투수로 활약했다. 2009년엔 KIA의 정규리그 한국시리즈 우승에 일조했다. 최병연은 2010년 육성선수로 KIA에 입단했다. 통산 34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

뉴시스